

日 자민 총재선거, 극우 다카이치·젊은 고이즈미 ‘양강’

요미우리 선호도 조사서 다카이치 29%·고이즈미 25%

지지자들 “개혁에 대한 의욕 보고 선택”...선거 3주 남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후임자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두각을 나타내며 양강 구도를 굳혀 가고 있다.

차기 총재 선호도 조사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만 20% 이상을 기록하며 다른 후보들을 멀찌감치 따돌렸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은 작년 9월 총재 선거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3~14일 유권자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내달 4일 선출되는 자민당 총재로 적합한 인물을 뽑아 달라는 질문에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29%로 1위에 올랐다고 15일 전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25%를 기록해 2위였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할 경우 고이즈미 농림수

산상이 33%,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28%로 순위가 뒤집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베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다른 후보들은 조사자 전체, 자민당 지지층에서 모두 10%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교도통신이 이달 11~12일 104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각각 28.0%와 22.5%의 응답률을 얻으며 양강 구도를 구축했다. 3위는 11.4%를 얻은 하야시 장관이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연령, 성별, 출신 배경 등이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60대 여성 비세습 정치인이다. 혼슈 서부 나라현에서 출생해 정치



다카이치 사나에(왼쪽)와 고이즈미 신지로. /연합뉴스

인 양성기관인 '마쓰시다 정경숙'에서 공부하고 TV 프로그램 진행자를 거쳐 1993년 나라현 지역구에서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보수색이 강하고 아베 신조 전 총리 정치 노선을 지향해 '여자 아베'로도 불린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이에 비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40대 남성 세

습 의원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차남으로 혼슈 동부 가나가와현 지역구를 물려받아 2009년 국회에 입성했다.

작년 총재 선거에서는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등 일부 정책에서 진보 성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고이즈미 농림수산상도 지난달 15일 일본 패전일에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두 사람은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행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이시바 총리와 거리를 둔 채 보수층 지지를 모으기 위해 지방을 다니며 강연 활동 등을 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이시바 정권에서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잠시 맡았고, 지난 5월 농림수산상에 취임해 쌀값 하락 정책을 주도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지지한 사람들은 모두 개혁에 대한 의욕을 주된 지지 이유로 꼽았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의 경우 차기 총재로

적합한 이유가 '개혁 의욕' 85%, '정책 기대' 74%, '국가 비전' 73% 순이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개혁 의욕' 89%, '메시지 발신' 88%, '인품' 84% 순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는 "총재 선거까지는 약 3주가 남았다"며 과거 하마평이 뒤집힌 예도 있고 토론회 등에 따라 정세가 바뀔 수도 있다고 짚었다.

자민당 총재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자민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뽑는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보통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다. 따라서 자민당 총재 교체는 총리 교체를 의미한다.

지금은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당이 사실상 분열 상태라 새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의회에서 진행되는 총리 선출은 자민당 총재 선거 후 수일 내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요미우리 조사에서 응답자 64%는 이시바 총리 퇴진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시바 내각 실적에 대해서는 55%가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찰리 커크 암살...美 정치 ‘증오’ 커진다

진영 간 극단의 대결구도 형성
내년 중간선거 앞 갈등 격화 우려
트럼프 ‘일방주의’ 가속 전망

'트럼프의 아들'로 불리던 미국의 우익 정치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이 미국에 거대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정치 문화는 기존의 공화·민주당의 제도권 정당정치 영역을 벗어나 보수·진보의 진영 대결로 흐르는 양상인데, 커크의 죽음은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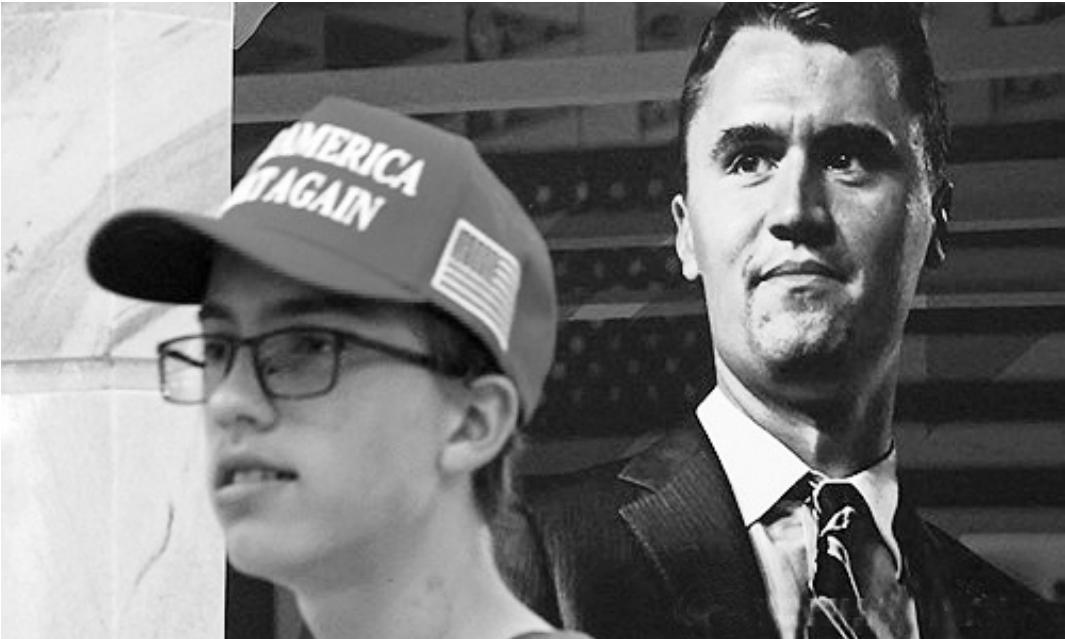
미 정가를 발각 뒤집은 커크 암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해온 '좌파 척결'에 더욱 전력투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사건을 처음 보고 받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믿지 못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4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의 죽음과 용의자 체포 사실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장 먼저 알렸으며, 커크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JD 밴스 부통령을 사건 현장으로 급파해 운구를 주도하도록 했다.

마치 정렬히 전사한 군인을 예우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는 진보·좌파에 대한 트럼프 지지층, 즉 커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전의를 불태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커크 암살이 "급진 좌파"



최근 유타 밸리 대학교에서 찰리 커크의 추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시민이 커크의 포스터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짓이라면서 "이 만행과 다른 정치적 폭력에 기여한 모든 자들을, 그것을 자금 지원하고 지지하는 조직들을 포함해" 모두 색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커크를 암살한 타일러 로빈슨은 사용하지 않은 탄피들에 '파시스트'를 증오하는 문구를 적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지지층을 파시스트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를 추구한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무자비한 이민자 단속과 공권력 동원, 반대파 숙청 등이 이런 조짐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커크 암살에 대해 '정치 테러'로 규정·비판하면서도, 극단적 형태의 폭력이 저질러진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행보가 있었다는 지적이 미국 진보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분열과 대립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아슬아슬한' 다수당인 상황에서 의회 구도를 결정짓는 중간선거는 양당의 사생결단식 대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대결 구도는 정치·사회적 긴장을 팽창시키게 되고, 커크 암살과 같은 정치 테러가 재발할 우려도 그만큼 커진다. /연합뉴스

트럼프 관세 ‘부메랑’...美기업들, 채용 중단

제조업·도소매업·에너지 등 분야 직적탄에 대량 감원
“노동시장 성장 멈췄다”...심화뎀 정치적 악재 될수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충격으로 미국 기업들이 고용에 제동을 걸면서 노동시장 성장이 멈췄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제조업, 도소매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관세 대폭 인상 조치로 비용이 상승하고 불확실성 탓에 사업 확장에 나서기 어렵게 된 탓이 크다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얘기다.

오하이오주 애크런에 있는 기타 페달 제조업체 '어스퀘이커 디바이시스'의 줄리 로빈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관세는 내 회사 같은 미국 제조업체에게 손해를 끼칠 뿐이다. 좋은 점이 없다. 갑작스럽게 세금이 부과돼 우리의 고용과 성장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빈스는 주문 수요에 대처하려면 현재 임직원 35명인 회사에 3~4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채용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의 안정성과 비용의 예측가능성 없는 고용도 성장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고용시장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올래 들어 처음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지난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일자리 성장 둔화가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을 상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관세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위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관세가 궁극적으로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의 비용 증가나 고용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일시적이라며 일축해왔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8월 고용통계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고용 성장세 둔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늘어난 일자리는 2만2000개에 그쳤고, '트럼프 관세'의 영향에 노출된 상품 생산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 폭이 컸다.

제조업에서는 8월에 일자리 1만2000개가 감소했으며, 올래 들어서 누적 감소분은 7만8000개다. 석유와 가스 등 광업 부문에서는 8월 6000개를 포함해 올래 1~8월에 3만2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